

제 I 장

인구 및 노년경제학의 연구필요성 및 분석범위

1. 인구 및 노년경제학: 무엇이 쟁점인가?

- 사람이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사람에 따라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물구나무서기를 한 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임.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이미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하였음.

 - 최근의 세계화, 정보화, 첨단기술 및 생명공학의 발전 등은 인간의 생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의 수명을 짧게 하고 있음.
 - 과거의 제품 및 지식이 오늘날에는 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오늘 유용한 제품과 지식이 내일도 유용하리라는 보장이 없음.
 - 짧아진 제품 및 지식의 수명은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지식 축적의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훨씬 치열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속한 변화는 사회 및 경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음.
 - 짧아진 제품 및 지식의 수명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 젊은 층은 줄어들고 노인층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는 제품 및 지식의 짧은 수명으로 인한 불안정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경제 및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를 유지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대표적 장애 요소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임. 노동력의 감소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성장의 신화를 무너뜨리게 하며, 나누어 가질 파이가 줄어들면 파이의 분배를 둘러싼 싸움은 더욱 치열해짐.

 -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는 것은 당연시하면서도 부모 부양에는 무관심한 젊은 세대들의 사고는 경로효친 사상의 퇴조와 핵가족 현상으로 더욱 확산될 것임.
 - 과연 길어진 노년의 삶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문제화가 심화될 것이

며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고 노인 부양을 둘러싼 세대 간 전쟁 역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

□ 당장 개개인도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선택을 강요받게 됨.

- 하나밖에 없는 아이의 교육에 투자를 할 것인가, 가정 경제를 이끄는 가장의 건강을 챙길 것인가, 나이 든 어른의 건강을 위해 병원비를 지출할 것인가? 드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선택을 강요받게 됨.

□ 과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될 2020년에 맞이하게 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 세계 경제 트렌드 전문가인 Todd Buchholz가 《마켓 쇼크》에서 그리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2020년의 모습은 다음과 같음.
- “2020년을 한번 상상해보라. 해리스버그 출신이 한나와 테드는 72세의 노부부이다. 베이비붐 세대인 이들은 건강상 주의를 필요로 하는 나이가 되었다. 부부는 내과의, 심장 전문의, 척추 교정 지압사 등에게 신속하게 다이얼을 돌릴 수 있도록 전화장치를 해놓았다. 이 부부의 외동딸인 베키는 마흔두 번째 생일을 맞이했고, 10대인 베키의 자녀들은 의식주를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볼 때 크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95세가 넘은 베키의 조부모가 살아 있고, 건강이 악화되어 일거수 일투족을 간호사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조부모, 부모, 자녀 이 세 세대는 베키의 양 어깨를 짓누르고, 정부는 그녀의 봉급에서 더 많은 돈을 빼앗아 가려 할 것이다. 그녀는 어느 추수감사절에 자신을 포함한 네 세대가 모여서 즐겁게 먹고 있는 저녁 식사비용을 자신과 남편만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 이것이 과연 다른 먼 나라의 이야기는 아니며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임.
-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지만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준비를 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임.

□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2020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시기이지만, 2020년 미래 모습을 예측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는 지금 알 수 있으며, 그것은 인구의 절대적인 규

모와 구성의 변화임.

-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맬서스는 1798년 《인구론》에서 인구 증가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경고한 바 있음.
 - 즉 그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방치해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함.
 - 그 후 2백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역으로 선진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사회를 우려하고 있음.
 - 일찍이 지식사회의 도래를 예견한 바 있던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지식경영》에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현실은 선진국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실제로 30년 전만 해도 평균 5명이던 세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평균 1.7명에 불과함.
- 일부 국가에서는 이로 인한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21세기 말이 되면 현재 1억 2,500만 명인 일본 인구는 5,000만 명으로, 6,000만 명인 이탈리아 인구는 2,200만 명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절대인구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의 고령화임.
-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사회가 확산되고 있음.
 - OECD 국가 중에서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사회로 접어든 나라도 다수임.
 - 세계에서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일본은 2030년경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1997년에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라는 책이 출간되어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불과 16년 전인 1982년에 《왜 일본은 성공했는가?》라는 책으로 주목받았던 모리시마 미치오 교수임. 대석학인 모리시마 식 논의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인구의 양적·질적인 변화를 통해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있다는 점임.
- 그는 경제가 사회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했던 마르크스와는 달리 경제 및 사회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인간이며, 경제 및 사회는 인간이라는 토대에서 만들어지는 상부 구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인구사관(人口史觀)’이라고도 불리는 이 관점에 따르면, 인구의 양적 · 질적 구성이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어떻게 경제를 운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임.

□ 한편 최근에는 선진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지도를 새로이 그리도록 강요할 정도의 지진과 같은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Agequake’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제까지 인구의 양적 · 질적 변화에 무심했던 우리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함.

- 2000년에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함.
-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임.

□ 고령 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임.

-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인 36년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함.
- 아직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는 없으나 일본이 가장 빠른 2006년, 독일은 2012년,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2020년대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되는 2020년대에 이들 고령 선진국과 나란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

□ 이미 20~30년 전부터 고령화사회의 도래를 소리 높여 예견하고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을 부단히 지적해온 선진국들의 경우는 그나마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 시간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함. 즉 내진 설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형국으로 고령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의 미래에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다가올 것이 우려됨.

□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은 고령화의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는 자녀수는 1960년대 평균 6.0명에서 2001년에는 평균 1.3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2002년에는 출산율이 사상 최저이자 세계 최저인 1.17명으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었음.
- 이 수치는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 수(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의 평균(1.7명) 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임.
-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3년 5,07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은 다음과 같음.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2001년에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대상: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91명) 결과에 따르면 인구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63%에 달했으며,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관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남.

□ 최근 들어 미약하나마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고령화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렇지만 건강한 젊은 층을 재생산해내거나 현재의 인력 구조에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됨. 따라서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때는 이미 늦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인구의 규모와 인구의 구성, 특히 고령화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측면

에서 ‘늙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와 기업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관심과 대응도 시급한 시점임. 지금 바로 고령화 대책에 대해 정부, 기업, 개인이 지혜를 모으지 않는다면 21세기 한국은 고령화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임.

2. 고령화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IMF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1997년까지 연평균 8.2%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압축 성장을 이루어왔음. 그렇지만 지속되는 성장에 너무나 익숙해져 성장을 당연시하였던 우리 국민에게 IMF 금융위기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은 충격 그 자체였음.
 - 거리에 네온사인은 꺼지고 도로 위의 차량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일단 IMF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도 향후 성장 동력을 무엇으로 하여 저임금의 중국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상존하고 있음.
- 이제까지 성장 동력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고 육성할 것인가 하는 산출물(output) 중심 시각에서 논의되어왔지만 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은 생산의 투입요소(input) 시각에서 성장 동력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경제학의 일반 공식을 따르면, 경제성장은 노동력(L) 및 자본(K)의 투입과 기술개발로 인한 생산성(f)의 향상에 따라 결정됨 ($y=f(L, K)$).
 - 이 공식에서 자본투입이 고정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력의 투입이 줄어들게 되면 경제성장은 그만큼 저하될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는 1961년 이후 고도성장을 이루는 기간 동안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현재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71.7%를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은 노동력 투입의 증가가 그동안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해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임.
 - 하지만 이제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제성장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임.
- 한편 생산가능인구 자체도 고령화되고 있음.
 - 2002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중 50~64세 인구 비중은 18.4%로 비교적 젊은 노동력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불과 20년 후인 2020년에는 50~64세 인구 비중이

33%로 두 배가량 급증하게 됨.

○ 이로 인하여 생산성의 하락과 잠재성장률의 저하가 우려됨.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비전2010>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5.2%, 2020년 3.2%로 하락한 뒤 2030년에는 1.7%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고성장의 시대에서 저성장의 시대로의 변화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

○ 즉 개인에게는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비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생산성 향상의 방안 추구를, 정부에게는 적정 성장 유지와 저성장 가능성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 있음.

□ 최근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Jeff Williamson 교수와 하버드대 국제 개발연구소 부소장인 David Blume 교수도 인구구성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보고서를 냈음.

○ 이들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우 1965~90년에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노동인구 비율의 증대라는 '인구통계학의 선물'을 바탕으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지적함.

○ 이들은 아시아 국가의 인구구성 변화를 부담 단계, 보너스 단계, 고령화 단계 등 3단계로 나눠 살펴보고 있음.

○ 첫 번째 단계인 부담 단계(burden phase)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공위생의 향상과 각종 백신의 발달로 유아 사망률이 급속히 감소한 1945~50년경부터 시작되었음. 유아 사망률의 감소는 노동인구의 양육비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이는 곧 경제발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임.

○ 두 번째 단계인 보너스 단계(bonus phase)는 출산율이 하락하고 부담 단계에서 출산되었던 유아들이 노동인구로 전환되면서 시작됨. 노동인구의 증가와 적정한 정부 정책으로 인항 경제 관리는 저축 및 투자의 증가를 낳아 결국 눈부신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임.

○ 세 번째 단계인 고령화 단계(aged phase)에서는 이 노동인구가 고령화되어 다시 비생산인구가 증가함. 이는 노동인구의 부담을 다시 증가시켜 경제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게 됨.

- 하버드 대학의 두 경제학자들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과 같이 보너스 단계를 충분히 만끽하고 곧 고령화 단계에 진입할 국가들은 앞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으며 의학기술의 발달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사는 것 역시 가능하게 되고 있지만 현실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경제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즉 서두에 언급했듯이 노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반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층의 부양 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
- 어린 자녀의 양육 부담과 노인 부양 부담은 앞의 세계 경제 트렌드 전문가인 Todd Buchholz가 《마켓 쇼크》에서 그리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2020년의 모습에 등장하고 있는 베키의 사례에서 보듯이 젊은 층의 어깨를 압박하고 있음.
 - 어린자녀의 양육비용은 그나마 출산 조절을 통해 부양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부담을 조절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임.
 - 한국의 경우 1970년대에는 25~64세의 노동인구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00년에는 7.6명의 노동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어 부양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되었으며 2030년경에는 불과 2.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될 것임.
- 그렇다면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대해 궁극적으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 《Agequake》의 저자 Paul Wallace는 어린 자녀의 양육 부담은 부모들이 기꺼이 짊어지지만, 나이 든 사람들을 돌보는 비용은 결국 사회가 떠맡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 결과적으로 고령화는 공적 부담의 급증을 야기하게 되는데, 고령화로 인한 공적 부담의 대표적인 것이 연금과 의료보험임.
 -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부담은 GDP 대비 2.1%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하지만 GDP 대비 공적 연금 부담은 향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50년에 이르러서는 10%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 미국, 영국보다도 높은 수치임.

- 그 원인으로는 연금 수령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임. 즉 2001년 약 60만 명이던 고령연금 수령자가 2010년에는 약 183만 명으로 불과 10년 만에 세배나 증가하게 됨.

□ KDI가 최근에 작성한 <경제 사회 여건 변화와 재정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예측한 내용은 더욱 비관적임.

- KDI는 한국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군인·사학·공무원 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재정이 오는 2020년부터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함.
- 특히, 50년 뒤에는 연금 지급액이 지금보다 2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연금보험료 수입은 6배 늘어나는 데 그쳐 공적연금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증가로 건강보험 역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 2001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 재정은 2.8조 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적자폭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리라 예측되고 있음.
- 즉 이러한 상황은 획기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는 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는 국가재정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 갈 것임.

□ 하지만 이러한 고령화 현상이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면도 있을 것임.

- 예전에 우리의 부모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자녀들의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기 위해 배고픔을 감내해왔지만 과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즉 이제 우리의 부모 세대도 변화하고 있고 미래의 노인 세대는 더욱 변할 것임.
- 길어진 수명과 자녀들에 의존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노년기 인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음.
-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자신을 위한 소비에 익숙하지 않지만 급속하게 진행될 의식의 변화는 노인들을 새로운 수요층으로 하는 실버비즈니스의 급성장을 가져오

고 있음.

-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진 노인들은 이전처럼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 독립된 생활을 즐기게 되었으며, 손자 손녀를 돌보는 데 여념이 없던 전통적인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거부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노부부끼리 오붓하게 보내려는 이른바 TONK(Two Only, No Kids)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임.
 - 이들은 경제력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인생을 추구하면서 소비의 직접적인 주체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

-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마켓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임.
 - 미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을 2000년 현재 12.8%로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함.
 - 하지만 이미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선 1945년 이후 60년간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은 사회 각 분야에서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착실하게 이루어져왔음. 기업 역시 황금시장으로 떠오른 실버마켓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준비를 해왔음.
 - 실제로 미국은 55세 이상의 인구가 무려 전체 금융자산의 77%(저축의 5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소비 비중은 전체 민간 소비의 30%에 이르고 있고, 전체 상업광고의 20%정도에 고령자가 등장하고 있음.

-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게 될 일본에서도 최근 실버비즈니스가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서고 있음.
 -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인 덴쓰는 2003년 일본의 실버마켓 규모가 무려 70조 엔(약 7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음.

-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발전 속도는 급속히 빨라질 것으로 예측됨. 특히 2000년대 들어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실버마켓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를 실버비즈니스로 연결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의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0년 17조 원에서 2005년 약 27조 원, 2010년에는 약 41조 원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노인층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기업이 시장을 제패하게 되는 일이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닌 것임.
- 따라서 고령화 현상이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은 이렇듯 긍정적인 면과 앞서 기술한 부정적인 면 모두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3. 인구 및 노년경제학의 주요 내용

□ 전술한 내용에 기초하여 본 교과목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2장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 현상이 각 경제주체에 미치게 될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을 소개함.
 - 즉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추이를 기술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 하락추이에 대하여 분석하며 현재 정부가 시행하거나 향후 시행하고자 하는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해 논하며 그 정책적 시사점을 기술함.

- 제 3장에서는 전장에서 논한 인구고령화 현상이 경제계 각 하부구조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그 시사 하는 바에 대하여 논함.
 - 즉 3장에서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거시경제전반, 노동시장, 국민연금 및 정부의 재정수지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기술하여 향후 분석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함.
 - 또한 각 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소개하여 향후 정책효과 예측 및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해를 증진하기로 함.

- 제 4장부터 이하 8장까지는 3장에서 다룬 개괄적인 내용을 각 분야에 걸쳐 심화하여 기술하고 선행연구결과들을 소개하기로 함. 우선 제 4장에서는 인구고령화 현상과 노령공적연금을 연관 지어 기술함.
 - 즉 4장에서는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술함.

- 제 5장에서는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정부재정문제에 대하여 기술함.
 - 즉 5장에서는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공적연금제도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한 고령층의 의료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정부재정 문제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술함.

- 제 6장에서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보건의료공급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장기요

양제도에 대한 부분을 심화하여 기술함.

- 즉 6장에서는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현행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가 변화하게 될 방향을 미리 예측해보고 향후 발생하리라 예견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함. 아울러 고령화 문제에 기인한 고령층의 장기요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요양제도도입을 위한 제반 문제에 대해 기술하고 동제도의 올바른 도입방향에 대하여 기술함.

○ 제 7장에서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함.

- 즉 7장에서는 노동력의 고령화 현상이 갖는 의미를 세밀하게 논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고령층의 은퇴양상을 살펴보며 향후 고령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개선과제를 소개하기로 함.

○ 마지막으로 제 8장에서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며 이 장은 크게 두 개의 절로 구성됨.

- 1절에서는 앞 장에서 소개한 공적연금이 일반 가계의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함. 즉 공적연금이 가계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소개하여 그 시사 하는 바에 대하여 기술하고, 실제 이 문제에 대하여 최근에 실증 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 결과를 소개하여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
- 제 2절에서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일반 가계의 자산수요의 변화에 대하여 기술함. 즉 인구구조와 자산시장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하여 이 주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기로 함.

□ 이러한 본 교과목에서 제공된 내용의 습득 및 이해를 통해 인구고령화 문제가 각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인구고령화 문제가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임.

○ 이는 향후 실버산업과 관련된 기업체의 경영전략 강구 및 마케팅 전략 마련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및 이론으로서 요긴하게 활용될 것임.